

[건강·의료]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성장기 어린이의 주걱턱 치료



지난 26일 동아병원에서 열린 '나눔의 병원' 현판식에서 정재훈 대표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정균호 내과 원장, 유길원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현판을 내걸고 있다. <동아병원 제공>

동아병원, 어린이 재단 '나눔의 병원' 선정

광주시 남구 동아병원이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나눔의 병원'으로 선정됐다. 동아병원은 지난 26일 오전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유길원 본부장과 병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동아병원은 2007년부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오고 있다.

전남대병원, 대만에 전공의 4명 파견 연구

전남대병원(원장 김영진)은 28일부터 2주간 대만 '장경기념병원'에 전공의 4명을 파견해 연구를 실시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2월 전남대병원과 대만 장경기념병원간 교류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연구 참가자로 선발된 강응운, 송영아(이상 내과), 이진호, 박영훈(이상 정형외과) 전공의는 장경기념병원의 진료체계 및 의료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장경기념병원은 계열 병원만 8개로 병상이 1만개가 넘는 대규모 종합병원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채혈 때 주먹 쥐지 말아야”

잘못된 검사 결과 나올수도

혈액샘플을 채취할 때 채혈이 쉽도록 주먹을 쥐게 하면 잘못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프린시스 로열 대학병원의 바네사 설로 박사는 2002~2005년 실시된 20만 건의 채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 때 주먹을 쥐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 신장 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BBC인터뷰가 최근 보도했다. 설로 박사는 채혈 때 차가운 기온에 노출되어도 칼륨수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주먹을 쥐는 것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채혈방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혈 때 주먹을 쥐면 혈액흐름이 좋아지면서 정맥이 돌출하게 돼 채혈이 쉬워진다. 채혈이 시작되면 쥐었던 주먹을 펴게 된다. 영국 국립정맥질개술학회(NAP) 회장 재키 휴 박사는 채혈 때 주먹을 쥐면 혈액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먹을 꽉 쥐지 말고 가볍게 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과학전문지 '임상생화학 회보(Annals of Clinical Biochemistry)'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만 7~8세 조기 교정 외모 개선 효과 크다



<양규호 교수>

현대미(美)를 추구하는 시대이다. 여자는 물론 남자도 외모를 더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같은 것이라도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것에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아랫니 돌출 댄 치과 진단 받아봐야 자신감 향상·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

◇부정교합이란=아랫니와 윗니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과 더불어 3대 치과질환 중 하나이다. 원인은 윗니에 비해 아랫니가 전방으로, 혹은 후방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동양인은 부정교합 중, 아랫니가 윗니보다 전방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하악 전돌증', 흔히 말하는 '주걱턱'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아주 어릴 때는 주걱턱 경향이 잘 보이지 않다가 크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주걱턱을 발견한 부모들은 아이가 혹시 자신의 외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을 한다. 이가 거꾸로 물러서 생기는 부정교합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순히 치아의 배열이나 위치 이상이 문제가 된 치성 부정교합, 치아 간 간섭 문제 등으로 아래턱이 반사적으로 전방으로 이동해 근육이 맞춰 적응해버린 가능성 부정교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제28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양규호 소아치과 교수가 '어린이 주걱턱의 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합, 윗턱 성장이 부족하거나 아래턱 성장이 과도해 생긴 골격성 부정교합 등이다. ◇주걱턱의 원인=하악 돌출형 외모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해 부모가 하악 전돌증을 가진 경우 태어난 자녀도 갖게 될 확률이 높으며, 선천적 요인으로 안정이나 세골두개이골증 등의 전신 질환을 가진 경우 하악 돌출형 외모가 되기 쉽다. 또 태아기의 약물이나 출생 및 성장기 중의 외상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후천적 원인으로 평소 잘못된 구강 습관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 혀내밀기나 구호흡(口呼吸) 등이 잠재적으로 하악 전돌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걱턱의 치료=흔히 주걱턱은 성인이 된 뒤 교정치료와 턱 수술을 하는 것 외에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주걱턱 아이들은 성장기 때 조기 교정치료를 받아야만 정상교합으로 회복되고 턱교정수술을 피할 수 있다. 조기 교정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다. 치아를 올바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윗턱 성장은 촉진하고, 아래턱 성장은 억제하는 장치 치료를 하기도 한다. 그 후 성장기 거의 완성되면 고정 장치로 치아를 배열하고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얼굴이 길고 커보인단든지, 어금니를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위 앞니보다 더 나와있단든지, 옆모습이 편평해 보인단든지 하는 하악 전돌증의 특징적인 소견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치과에 내원해 진단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치료시기는 영구치가 나는 만 7~8세 경이 좋다. <양규호 전남대병원 소아치과 교수> /정리=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31사단 장병들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사단장 등 수백명 동참



28일 오전 육군 31사단 사령부에서 열린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행사에서 31사단 장병이 헌혈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혈액원 제공>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는 여름철 수혈용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토사단인 31사단이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육군 31사단은 28일 광주시 북구 31사단 사령부에서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행사를 갖고 서길원 31사단장 등 장병 수백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31사단은 이날 사령부를 시작으로 예하부대를 순회하면서, 장병 4천450명이 헌혈운동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1사단은 또 현역 및 예비군 헌혈자의 감소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부대 내에서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헌혈유공자 격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헌혈왕'으로 선발되면 사단장 표창과 포상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광주·전남혈액원 정하광 원장은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수급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뤄져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일반 단체나, 기업, 행정·공공기관에서도 하절기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yuntan (Q10) supplement.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n elderly woman smiling. Text includes: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and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It also lists benefits like Vitamin A, C, E, and B12, and mentions it's a 'Korea's No.1' product. Contact info: 155-1000, HITEO, www.kyuntan.com.